

이 대통령 “중앙 60년, 한국사회 나침반이자 회초리”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중앙일보의 새 출발을 함께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중앙에서 현재의 갈등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60
중앙일보 창간

이재명 대통령 영상축사 “국민통합 동반자 기대”
우원식 의장 “개헌 꼭 필요, 공론화 역할 해달라”
홍석현 회장 “좌든 우든, 극단의 목소리 경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1500여명 성황

중앙일보가 새로운 60년의 문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장과 굴곡진 역사의 현장 최일선에서 언제나 함께해 왔다. 경제 성장의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는 길에서,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때로는 회초리가 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앙일보가 불편부당·정론직필 정신으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60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의 공론화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낡은 헌법을 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당면한 정치·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며 “새로운 헌법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중앙일보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기념사에

서 “중앙일보는 편들기를 거부한다. 좌든 우든, 노(勞)든 사(使)든, 극단의 목소리를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네 글자에서 중앙일보의 존재 이유를 찾아본다”고 덧붙였다.
자연 속의 물이 그러하듯, 중앙일보의 잉크가 사회 곳곳에 흘러가 모난 곳을 깎아주고, 더러운 것은 씻어주고, 예쁜 곳은 더 빛내 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각계 인사 1500명이 현장을 찾았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 관계기사 2, 3, 4, 5면

‘KT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2명 체포

중국국적...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발생한 ‘소형 기지국 해킹 및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KT 이용자 휴대전화 정보 해킹과 소액결제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 동포였다. 경찰은 이들이 이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지시한 국내외 배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사용한 장비의 출처와 KT 휴대전화 해킹 방법을 조사하는 한편, 이번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

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자기 혐의로 중국 동포 A씨(48)를, 컴퓨터 등 사용자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B씨(44)를 지난 16일 각각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2시 3분쯤 인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별도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검거됐다.
김창용·최모란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 6면 ‘KT 사태’로 계속

창간 기념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 NYT·닛케이·중앙의 디지털 전략 > 8면 | 조현·왕이 회담...시진핑, APEC 초청 > 14면 | 정부부채, GDP 47% ‘사상 최고’ > B1면 |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알펜시아CC 27홀 + 알펜시아700 18홀
두 가지 소유의 특권

마감임박

명문은 시간을 넘어 가치로 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 가장 품격 있는 필드”

알펜시아, 명문 리조트에서 시작되는
당신의 고품격 라이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무기명 회원모집

회원제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별도 문의 (한정구좌)

골프·객실·스키·워터파크
7천만원대의 합리적인 무기명 회원권
5년 만기 전액 반환 / 모든 시설 무기명 4인 할인

시설 개요
인터컨티넨탈 호텔 | 홀리데이인 호텔 및 리조트
회원제 27홀 | 대중제 18홀 | 오션700 | 스키700

계좌안내 | 140-014-810958 신한은행 (케이에이치 강원개발 주식회사)

문의번호
033-339-0640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25351)

KH ALPENSIA Holiday Inn & Suites INTERCONTINENTAL ALPENSIA PYEONGCHANG RESORT